

제2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1. 12. 1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10:08~18:52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272호, 제278호~제289호)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1년도 제2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1년도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278호 『에스케이증권(주)의 (주)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대행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279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케이티비파트너스(주)

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대행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케이티비파트너스(주)가 신설 회사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pattern)로 설립하고 곧 증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 설립 시에 필요한 자금을 바로 투입하고 어느 정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증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pattern)가 아닌지?

- (보고자) 신설 법인의 경우에 최소한의 자본금을 가지고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인가나 출자승인 이후에 증자의 형태를 통해서 법상 요구하는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도 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80호 『하이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왜 심의가 유보되었는지?

- (보고자) 동 부문검사가 000의 금융사고와 □□□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에 대한 두 가지 건이 있었음. 그중 □□ □□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과 관련해서 양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유보가 되었음.

○ (위원) 차명계좌 자금의 실소유자인 ☆☆☆, 명의대여자인 ◇◇◇, ◆◆◆에 대한 제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 (보고자) 동 건과 관련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만 가능하고 일반인 제재에 대한 근거는 없음.

○ (위원) 명의를 대여한 ◇◇◇, ◆◆◆에게 000이 승낙을 받고 명의를 사용한 것인데 형식적인 위임장이 없기 때문에 제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 ◆◆◆ 두 사람이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한 것인지?

- (보고자) ◇◇◇, ◆◆◆는 인지를 하였으나 규정에서 정당한 주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

○ (위원) 실명법 위반이 되면 검찰에 업무정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는지?

- (보고자)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통보를 하고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72호 『아데나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위원장) 제272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금융감독원은 아데나투자자문(주)에 대해 월별, 분기별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과태료 1억 8,400만 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현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서 확인한 아데나투자자문(주)의 재무현황을 감안하면 1억 8,400만 원의 과태료를 전액납부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보임. 또한, 영업 미영위와 폐업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데나투자자문(주)에 대한 신속한 퇴출이 이루어졌었다면 업무보고서 미제출이라는 본 건 위반행위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4호나목의 (7)에 따라 아데나투자자문(주)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과태료 감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아데나투자자문(주)에 대한 과태료를 금감원 원안 대비 50%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81호 『제이알투자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82호 『강서농업협동조합 등 8개 지역농축협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기존 인가를 받았던 36개 지역 농축협의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 (보고자) 106억 원 정도의 수탁고를 가지고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83호 『신한자산운용(주)과 신한대체투자운용(주)의

합병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84호 『(주)○○○○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85호 『(주)○○○○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였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보고자) 일단, 규정상으로는 한도만 상향이 되었음. 소규모 회사들이 많은 중소기업 코스닥 법인의 특성을 감안해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1,000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됐습시다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는 부과비율을 10만분의 1로 정하고 있음. 그것을 1만분의 1로 상향시키는 법안이 현재 계류 중임. 그것이 실질적으로 올라가야 과징금이 조금 더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됨. 다만, 시가총액이 적은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과거 10만 원 이하였던 과징금이 앞으로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86호 『넷마블네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87호 『(주)한창바이오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88호 『(주)뉴라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넷마블네오(주) 관련되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음.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서 매도를 한 경우에도 소액공모(매출) 공시서류를 미제출한 것으로 의제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K-OTC에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로 간주를 하는지?

- (보고자) 그러함. 증권시장하고 다자간 매매체결 외에 K-OTC 시장에서 매도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그 근거규정이 명확히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에 모집매출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모집매출금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10억 원 미만이면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을 산출할 때 K-OTC 시장에서 매도한 경우 소액출자자 이외의 자의 매출가액은 이 모집매출금액에 포함되나, 소액출자자

의 매출가액은 이 모집매출 금액에서 빼도록 되어 있음.
대신에 소액출자자가 아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라든지,
최대주주의 매출가액은 이 모집매출금액에 합산하게 되어
있음.

○ (위원) 그런데 10억 원하고 50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 (보고자) K-OTC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수를 상대로 호가를
제시하는 것이며, K-OTC 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는 것을 청
약권유로 보게 됨.

○ (위원) 매수주문을 낸 사람을 청약 권유한 사람으로 간주한
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K-OTC 같은 경우에는 매수주문하는
사람이 50인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은지?

- (보고자) 저희가 모집매출 대상을 따질 때 그 10억 원은 실
제 청약이 이루어진 금액이 아니고 청약의 권유금액으로 보
고 있음. 50인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임. 그래서 K-OTC시장
에서는 매수주문을 내는 것 자체가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청약권유행위에 해당함.

○ (위원) 프라이빗(Private)에서 하는 비상장 주식거래 하는 사
이트들, 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 (보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트들은 일반적으로 호
가만 올려놓아서 1:1로 서로 매치(match)가 되어 찾아서 거

래하는 것으로 시장의 특성이 조금 다름.

- (위원)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할 때 10억 이내로 팔지, 이상으로 팔지 그것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닌지?

- (보고자) 이것이 여러 횡수를 위반했는데 저희가 그 위반횡수를 2회로 한 것이 원칙대로라면 K-OTC에 주문을 낼 때마다 매출신고서를 내게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 건별로 증권신고서 등을 매번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실무적으로 매출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신고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실무적으로는 1년이면 1년 이런 단위로 자기들이 시장에서 매출하겠다고 신고서를 내게 됨.

- (위원) 정리하자면 K-OTC 최대주주 관련 특수관계자 거래분에 한해서만 금액이 10억 원을 넘어가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 이것이 다 공시와 관련된 사항인데 소액공모는 과태료로 가고 증권신고서 내지는 반기보고서는 과징금으로 감. 제가 보기에 위반행위의 원천은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떤 것은 과태료로 가고 어떤 것은 과징금으로 가서 산식이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징금보다 과태료 계산하는 방식이, 기업이 소규모기업이고 중자규모나 금액이 적을 때는 과태료가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음.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왜 이것이 과태료, 과징금으로 나누어지는 것인지?

- (보고자) 소액공모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제도와 달리 여러 가지 제약을 풀어 주었음. 증권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액공모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좀 더 우선시해서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보다는 과태료 쪽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음.

○ (위원) 지금 이 제도가 조금 복잡하니까 K-OTC 시장과 협조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사이트에 써 놓든지 그렇게 안내를 하면 좋겠음.

- (보고자) 알겠음. 저희 실무자들끼리는 그렇지 않아도 이 건이 최초 사례다 보니까 협회 쪽에 명시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89호 『증권선물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공개 전환

및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2018년부터 2020년 이외에, 예를 들어 2017년이나 2016년에 수사나 재판 같은 것으로 인해서 비공개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제되어서 다시 공개될만한 건은 없는지?

- (보고자) 없음. 안전 공개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2월에 만들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안전은 공개하지 않고 의사록만 공개했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제2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8시 52분 폐회)